

석유공사, Sinopec과 석유개발 협력

자회사 SIPC와 개발지역 공동 진출 ... 국제 공동비축 사업도 추진

스위스 석유기업 Addax를 놓고 인수경쟁을 벌였던 한국석유공사와 중국 Sinopec이 석유개발 분야에서 협력기로 합의했다.

석유공사는 9월24일 경기도 안양 본사에서 강영원 사장과 수슈린(蘇樹林) Sinopec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Sinopec 산하 석유개발부문 자회사 SIPC 및 석유 트레이딩 부문 자회사 유니펙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와 SIPC는 앞으로 해외의 유망한 석유개발지역에 공동 진출하는 등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유니펙과 함께 국제 공동비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유 거래와 마케팅 분야에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아시아 최대 석유개발 및 정유기업인 Sinopec 그룹과 긴밀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세계 유수의 석유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석유산업 주간 정보지 PIW(Petroleum Intelligence Weekly)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세계 석유기업 순위는 Sinopec이 25위, 석유공사는 95위를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25>